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2 전교인 여름수련회

8월 12일(금) | 13일(토) | 14일(주일)
저녁 | 새벽저녁 | 저녁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다음세대 위한 은혜의 축제, 7월 16일~31일 열려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물놀이와 고기 파티가 좋았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유아인(6학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주원 교사(소년부)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은혜의 축제 <2022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광림교회와 비전랜드에서 열렸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교회 내에서만 진행했는데, 올해는 비전랜드와 밀레니엄 광장에서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참여하려는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해마다 진행해 왔던 여름성경학교라는 일상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신 6:4~5)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의미를 삶에 새기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 여름성경학교는 각 연령대에 맞는 주제와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7월 16일~17일에는 유년부와 소년부, 23~24일에는 영·유아·유치부와 초등부가 교회와 비전랜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광림교회 밀레니엄 광장에 설치된 물놀이장에서 영·유아·유치부와 유년부는 신나는 물총 놀이와 미끄럼틀을 타며 여름 더위를 식혔다. 초등부와 소년부는 아름다운 숲 비전랜드에서 물놀이를 비롯한 은혜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밝은 웃음소리 속에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예배시간에 울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친구들도 많았다. 아이들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 위원장, 교역자들은 기도로 행사를 준비했다. 교사들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심방하고 권면했다. 수련회 기간동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했다.



말씀으로 빛나는 삶 임재철 목사(교육1부)는 예배에서 “코로나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고 가치 있고 빛나게 이끌어준다.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삶 속에 새기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폐회 예배에서는 어린 영혼들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일상과 학업을 잠시 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름성경학교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

소현수 기자

“위로 받은 자의 삶”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고린도후서 1장 5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했지만, 바울은 자주 아팠고 치유를 위해 드린 기도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전도의 과정에서도 배고픔과 목마름, 강도를 만나는 위험, 강이나 바다를 건너다가 죽을 뻔한 위험 등 그가 겪은 고초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잦은 오해와 분쟁,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고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돌기둥 위에서 참수를 당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비참해 보이는 그의 인생이 결코 저주의 인생으로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이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넘치는 것만큼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위로를 통해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강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라고 복음을 전하며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이 없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르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때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강력한 모습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더욱 부드럽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려리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양을 채우는 동안 훌륭한 인물로 빛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하심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1절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 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 당하러 가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리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앎이라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둘째,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통이, 다른 어떤 사람은 관계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에 다른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하고, 그의 부족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

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확신이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며, 나보다 인정받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같은데도 분쟁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동역자들이 많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위리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이 물질이 되었든, 관계나 자존심이 되

었던 간에 이러한 가장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실재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어주십니다. 모자람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모자람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위리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상처받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운 것처럼, 이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면 ‘같이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한 위로란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함께 느끼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연약함, 콤플렉스를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 나와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외감을 느꼈다면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면 외로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위로의 만남이 되고, 나누는 모든 대화가 위로의 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성찬식으로 은혜롭게 마쳐

장로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40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15일(금) 종료했다. 호렙산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개인별 성찬세트를 가지고 주님의 삶과 피를 나누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번도 쉬지 않고 34번째 호렙산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힘찬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광림교회 장로회(회장: 장세근 장로)는 호렙산 기도회를 종료한 직후, 사회봉사관에서 시무장로 40여 명이 부부동반으로 모여 감사 조찬예배를 드렸다. 40일간 능력의 말씀으로 호렙산 기도회를 인도하며 새 힘을 주신 김정석 담임목사의 수고에 감사하며 성도들을 대신하여 장로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하며 인사를 전했다.

장세근 장로의 사회와 김경래 장로의 기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도처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열방의 교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안디옥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였다. 우리 광림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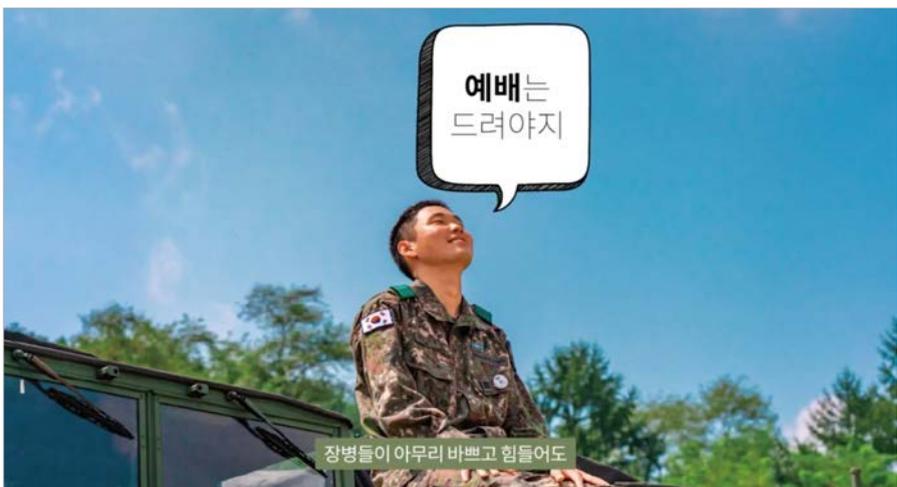
“첫째,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고 힘쓰며, 사회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셋째,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 받는 교회로서 순

종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며 이런 교회를 이루는데 힘써 동참하고 사명 감당하는 장로들이 되길 권면하였다.

장로회를 대표하여 장세근 장로는 “호렙산 기도회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지 비전을 제시해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예배와 함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며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야 함을 체험했다. 15개국 이상이 참여한 호렙산 기도회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한 기도의 등대가 되었다”며 “우리 모두가 호렙산 기도회의 영적인 유산을 후대에 잘 계승하고, 호렙산 기도회에서 받은 큰 은혜와 말씀을 따라 겸손하며 순종하는 장로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변영혜 기자

온라인에서 만나는 군선교 ‘에드지’ 예배



지난 6월 25일 유튜브에는 이색적인 영상이 게시됐다. ‘김 이병,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라는 제목의 영상은 찬양→기도→말씀→간증→기도 순으로 채워진 12분 분량의 콘텐츠였다.

이 유튜브 계정은 감리교 군선교회(이사장 김정석 감독)가 개설한 ‘에드지’이며, 에드지는 ‘예배는 드러야지’의 약자로, 장병들에게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전하는 채널이다. 감리교 군선교회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장병들이 군에 복무하는 1년 6개월간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12분 분량의 영상 80편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정석 이사장은 “4만명의 그리스도인이 입대하여 18개월 복무하는 동안 50%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이 군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제대 후 본교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군선교 활동을 목표로 만든 것이 ‘에드지’이다. 장병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 이번 사업이 군선교의 새로운 전략과 대안이 되면서 다음세대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드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예배팀의 찬양과

현직 군종목사의 기도, 각 교단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의 설교, 셀럽들의 간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6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채널명: 에드지)에 업로드되어 국군장병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영상은 동시에 군선교 VISION2030 홈페이지(vision2030.or.kr)에도 업로드되고 있는데 군선교 VISION2030은 한국군종목사단이 10년 동안 100만 장병에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선교운동이다.

에드지 사업은 감리교 군선교회가 주관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와 광림교회(김정석 감독)가 후원하고 있으며, ‘복음의전함’과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총괄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의 김주송목사는 “현재 에드지 영상은 신병교육대 주일 예배 전 활용되고 있으며, 군에 처음 입대한 형제들이 이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각종 훈련 등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말씀과 간증을 들으며 믿지 않는 장병들에게 복음도 전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7월 찬양의 밤
7월 24일(주일) 본당 대예배실에서 찬양의 밤 예배를 드렸다.



8월 온타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8월 온타임이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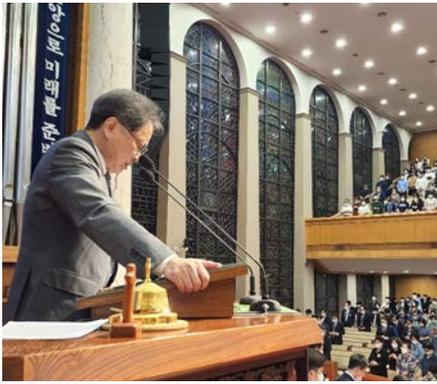
부모학교
7월 17일, 24일 청장년부 주관으로 부모학교 특강을 진행했다.

담임목사 동정



- 7/15 호렙산기도회
성찬예식
상반기 목회자세미나
- 7/18-23 감독회의
- 7/24 서울남연회 목사안수식
정회원 허입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월 29일, 순복음대학원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마치고, 충신대의 국제원격 평생교육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저의 작품 사진 엽서와 두란노서원에서 출간한 제 그림이 수록된 성경책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놀라워 하셨습니다. 그 세미나를 진행하셨던 교수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대신대(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실천신학(기독교와 예술)>을 강의하면 좋겠다고 하며 학교에 특임교수로 올려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받은 이력서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대학원장님에게로 보고되었고 총장님께까지 올라가서 특임교수로 채용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 석,박사 코스인지라 담당 교수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석사 학위 뿐이래 명예 철학 박사 학위(예술철학)를 학교에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그림으로 나온 구약1 성경책이 세계 최초이기에 박사논문 이상의 가치라 하였고, 신학 대학교에서도 성화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과목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학교에 재직하는 것이 학교를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것이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박사 가운을 맞췄고, 7월 12일에 학교 강당에서의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특임교수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또 총장님께서 저를 겸임교수로도 채용하셔서 신학생 전부가 제 강좌를 듣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일면식도 없던

교수님을 통해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그 교수님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와 신학대학교 특임교수와 겸임교수를 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학교 측에서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꿈도 꾸지 않고 부탁한 적도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작품을 더욱 잘 그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겸임교수는 정년도 없다고 하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변영혜 권사(3교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지 40여년, 광림교회를 다닌 것만도 벌써 34년째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측면만 복을 달라 기도했지만, 이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제 신앙의 변화 또한 주님의 은혜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광림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첫째, 주말 끼고 여행가면서 간혹 빼먹었던 주일 예배도 이제 주일을 피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주일 예배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둘째, 숙제처럼 여겼던 '트리니티 성경공부'도 온라인이 아닌 매주 화요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참석했더니 더 큰 감동으로 찾아왔습니다. 피곤해서 졸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려왔습니다.

셋째,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대심방은 이제 축복의 원천으로 느껴집니다. 목사님과 전도

사님께서 친히 가정에 오셔서 축복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넷째, 귀찮게 느껴졌던 선교회 모임들은 기쁨의 예배와 성도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테판 회장으로서는 사명 다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째,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속회 예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섯째, 매월 빼듯한 생활이지만 십일조를 다시 하게 되었고 놀랐게도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 주고 계십니다. 십일조의 기적은 정말 놀랍고 무섭기까지 한 하나님의

Break through Darkness into Light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렙산 기도회도 주말만 참석하다가 이젠 비록 온라인이지만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첫 40일 새벽기도 완주만큼 새벽마다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동료로 채워주시고, 물질까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김영관 집사(7교구)



“초코파이 신앙이 아멘 신앙으로 달라졌어요”

그동안 ‘인생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모임 문자를 받고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명함을 만들기 위해 학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투자가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기며 많은 수의 강사를 채용하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학원의 입지를 위해 학생들의 연주회, 쿡쿠르 등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야만 했기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견디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모든 사회와 경제가 멈췄고 준비하던 행사들도 모두 멈췄습니다. 게다가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어나 문을 닫는 것이 전기세라도 아끼는 최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때 조심스레 언니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대심방 받아 볼래?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거야.”

저는 승낙하고 얼마 뒤 목사님과 전도사님, 지구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뵈는 그 앞에서 눈물이 터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학원이 활기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한 시간에 한 명이 왔었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오랜 만에 학원이 생기를 띠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대심방을 받게 되었고 그날도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문하실 때마다 달라지는 학원의 분위기를 느끼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뵈게 된 목사님께 “기도해주시면 학원이 달라져요”라고 말씀드리니 “이제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라고 하셔서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호렙산 기도회 홍보영상을 보았습니다.

“언니, 호렙산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아?” “응, 호렙산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아”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잠이 많은 내가 어김없이 4시가 되면 눈이 떠졌고,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고 그런 내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깨달은 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렙산 기간 중 쿡쿠르에 참여한 학생 모두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년여의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우리 학원생 중에는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적어놓고도 기억하지 못하

는 기도에도 응답해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학원 매매 문의는 있었으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렙산 기도회가 끝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 방문한 분이 그날로 바로 계약하며 갑자기 학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릴 때 의사촌을 따라 억지로 간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받아 기도하며 “아멘”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땐 솔직히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습다. 그렇게 외치면 웬지 나한테 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교회에 가봤지만 “아멘”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열심히 주일을 지키고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들에게 보여줄 명함 한 장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니 외롭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매일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힘과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라 믿으며 올해도 호렙산 기도회에 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성도(광림남교회)



목회현장

Korea - Canada: Over 100 Years of Friendship



Pastor Wesley for Kwanglim English Ministry

Korea-Canada relations date back to 1888, when Canadian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of Toronto was the first sent to Korea. Reverend Gale created the first Korea-English dictionary and prepared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Christian Bible. Furthermore, Gale wrote the first substantial history of Korea in English. He also founded the YMCA in South Korea.



Reverend James S. Gale First Canadian Missionary sent to South Korea

Dr. Oliver Avison, a noted scholar and philanthropist, wa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medical school and the personal physician for the mayor of the City of Toronto. When Horace Underwood came to Toronto to recruit doctors to serve at the Royal Hospital in Seoul Avison kept thinking, "Why only young doctors, why not me?" Dr. Avison not only became a personal physician to King Gojong, but he also founded the Severance Hospital in Seoul and the medical college that became Yonsei University.



Dr. Oliver Avison, Founder of Severance Hospital

Dr. Francis Schofield from Guelph, Ontario, became a national hero in Korea for his bold participation in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Dr. Schofield is the only foreigner buried in the Korea National Cemetery. Between 1888 and 1941, a total of 184 Canadian missionaries served in Korea. Many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Korea's path towards modernization,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health.

한글 메시지는 7면으로 이어집니다.

광림남교회

웨슬레 선교회원 초청 예배와 감사오찬



광림남교회는 웨슬레 선교회원 초청 선교예배 및 감사 오찬을 가졌습니다. 제34회 호렙산 기도회의 열기가 한창일 때 남선교회에서는 본부 임원을 중심으로 호렙산 여정이 끝난 다음 날인 7월 16일 감사오찬과 함께 웨슬레 선교회원 초청 선교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오찬 메뉴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과 섬김을 표현하고자 영양이 가득한 삼계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초복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닭 손질 및 재료 채우기, 육수 준비, 한 여름의 보약이라는 시원한 열무김치, 반찬을 손수 준비하였습니다. 후식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후식은 청장년부에서 준비하겠다는 연락도 왔습니다. 뜨거운 술 앞에서 땀 흘리며 준비하는 과정이 지칠 만도 한데 감사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음은 섬김의 마음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예배에 약 80여명의 웨슬레 선교회원이 부동반으로 참석하여 준비된 예배 장소를 가득 채웠고 흥겨운 기타연주, 찬양으로 시작하여 목사님의 말씀과 나눔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교회 최고령(만91세) 이십에도

52교구 웨슬레 선교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염동한 집사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쁘게 말씀으로 살자며 모두 120세까지 건강하자고 웃으시며 파이팅을 힘차게 외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 재료로 우려낸 육수가 일품인 삼계탕의 여운이 끝나기 전에 청장년부에서 준비한 떡, 수박, 레몬/자몽 슬라이스와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티로 후식이 제공되어 훌륭한 오찬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모임이 소홀해지고 다음 세대가 온라인을 선호하고 기성세대와 함께 하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큰 지금, 광림남교회의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선교예배 및 오찬을 감사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대로 집사(광림남교회)

7선교구

속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두 장로

7선교구(조성한 목사)에서는 호렙산 기도회 중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육관 2층에서 연합 속회를 드렸다. 총 5회 중 2회를 교구 목사님이 미국 출장을 가셔서 두 명의 장로가 연합 속회의 말씀을 담당하였다. 간증 형식의 진솔한 말씀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함께 은혜로 다가와 공유하고자 한다.

6월 18일 김경래 장로는 가족 사랑(요일 4:7-12)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사랑의 시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였다. 특히 김경래 장로의 아버님이 소천하기 바로 직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평생 처음 말씀하셨고 그 말이 맴돌아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품지만 말고 직접 말로 고백해 보자고 제안하였다. 경상도 출신의 무뚝뚝한 권사가 "아들 사랑해,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자기도 해야겠다고 했다. 이처럼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슴에



가족 사랑이 울려 퍼진 은혜로운 속회였다.

6월 25일 박영준 장로는 하나님과 영업 비밀(출 30:1-10)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20여년 경 영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거나 매우 독특한 것일 줄 알았는데, 회사의 생존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다고 하여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주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신 것 같이 축복을 주셔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순종하면 도움의 손길을 통해 성취시켜 주셨다고 했다. 이처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한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뜻깊은 속회였다. 교역자의 부재로 생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나 걱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

이번 연합 속회를 계기로 침체되었던 모든 개체 속회가 활성화되고 소박한 은혜 체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김호근 권사(7선교구)

상반기 목회세미나

더욱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날 오전, 10시부터 광림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나사렛 성전에 모였다.

1월부터 지금까지의 목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상반기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철저한 계획과 정성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사명을 다하고자 모든 목회자가 한 자

리에 모였다.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시작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1-3절의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코로나 이후 광림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셨다.

먼저 광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한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선교하는 교회였다. 유대인의 닫힌 시각으로 세계 선교가 어려웠기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 둘째, 예배와 섬김의 교회여야 한다. 조선 말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죽을 때 선교사들은 아픈 이들을 돌보았다. 섬김에 감동한 당시 고종황제는 하사금을 내려 초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교회는 선한 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떼어 놓으셨다. 큰 일 날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순종해야 한다.

광림교회는 목회세미나를 통해 하반기 10가지 방향에 집중할 계획이다. 1)지도자 양육 2)저녁 예배의 활성화 3)목회자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4)전략적 관계 전도를 통해 열매 맺는 사역 5)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6)미혼 세대의 부흥 및 청장년부와 연계 7)교회학교와 청년 등 다음 세대 집중 8)성가제 등을 통한 화합의 장 마련 9)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10)거룩한 영성의 지향. 그 중 새로운 지도자 양성과 저녁 예배의 회복을 기대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복음의 전함'과 함께 진행되는 총력전도로 좀 더 전략적인 관계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다. 또한 3년간 진행치 못한 선교구 찬양제 등이 계획되어 있고 남교회에서는 10월의 체육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광림교회가 되길 기대한다.

유용찬 목사(문화홍보실)

청년부

“아름다운 세종 땅에 복음의 불씨를”

<2022 LFC 광림 청년부 국내교육선교 1차>



2022년도 여름, 광림교회 청년부에서는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들의 신앙 회복과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는 국내교육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목)~ 23일(토) 제 1차 교육선교 지역인 세종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움을 마주한 세종 지역의 교회들은 여름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청년들이 한 달간 준비한 학교 앞 노방전도 및 버스킹 찬양 집회, 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세종제자교회 김재준 목사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도시, 세종 땅에 복음의 불씨가 다시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광림교회 청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였습니다”라며 세종 땅의 복음의 불씨를 광림교회 청년들이 지퍼주기를 기대하며 광림교회 교육선교에 대한 기대감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세종지역팀장으로 섬긴 정세호 형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은사대로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종교육선교의 사역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맡겨진 사명에 일치된 순종으로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신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022 LFC 광림 청년부 국내교육선교의 선봉이었던 세종교육선교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LFC 광림 청년부를 통해 올여름 12개 지역의 교회들마다 교회학교에 복음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목회현장

회복의 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웨슬리 목사(영어예배)

캐나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와서 광림영어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888년부터 1941년 동안 184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과 의료 분야에 근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캐나다 선교사 및 한국어 학자인 제임스 S. 게일(1863-1937)은 1888년 한국에 와서 한영사전을 만들어 성경의 한국어번역을 준비했고 YMCA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고종 황제의 개인 내과의사이며 선교사 교수였던 올리버 R. 애비슨 (1860-1959)은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 전신인 의료대학을 설립했고, 프랭크 스코필드는 1919년 삼일 운동에 참가했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1960년 윤보선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고 있는 프랭크 스코필드

사실 제가 섬기는 광림영어예배에서 코로나 팬데믹 충격은 잔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친구들이 코로나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방역규칙을 따르다보니 예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거의 버랑 끝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걸어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광림영어예배 공동체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과 손을 합쳐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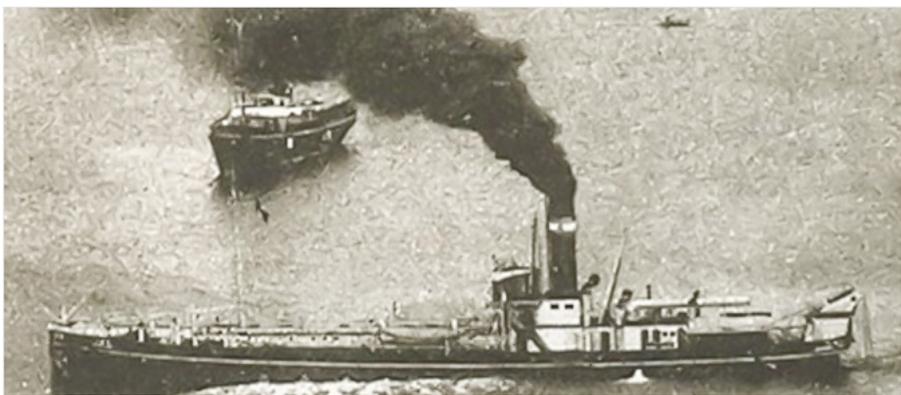
우리 광림영어예배에는 신성수 장로와 이성수 집사같이 신실한 형제가 곧비치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예배를 이끌고 있고 임소연 피아니스트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돕는 신실한 자매들이 예배에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며 한결같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영어 찬양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광림영어예배를 지켜내려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코로나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림영어예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어두움을 겪고 있는 시간을 돌이켜 봅니다. 주일 이른 아침 예배실에 먼저 와서 단 위에 올라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에 온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축도가 끝난 후엔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어 예배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즘 쉬운 영어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복된 말씀을 듣기 위해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사역의 선봉에 선 한국 교회들에게 거침없는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갑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고전 15:59)” 하나님이 광림교회에 은혜에 은혜를 더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펜젤러선교사 - 8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



▲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한 구마가와마루(The Kumagawa Maru) 증기선

1885년 27세의 나이에 조선의 첫 선교사로 파송된 아펜젤러 목사(H. G. Appenzeller)는 목회자, 교육자, 출판사업가, 번역가 등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며, 조선의 복음화와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02년 6월 11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앞 바다에서 일어난 선박사고로 인해 44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일등석에 있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삼등석에 있던 그의 조사인 조한규와 한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성서번역을 위해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는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고향에서는 번역가로 소개될 만큼 여러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런 능력으로 한국

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성경번역을 위해 온 정열을 쏟던 그는 성서번역사회의 '신약전서'의 수정과 보완 작업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레이놀즈 선교사가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번역작업을 하기 위해서 목포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여러 연합기관에서 봉사했는데 그는 직책이나 지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다른 위인들이 번역하지 못한 부분까지 맡아서 번역했으며 성서번역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펜젤러는 1890년 3월 <누가복음전>, <보라달로마인서> 3,000부씩을 삼문출판사에서 출간했습니다. <보라달로마인서>는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이 로스의 로마서를

수정한 것입니다. ('보라'는 '바울의 중국식 번역') 1892년 1월 20일 아펜젤러 번역 <마태복음전>이 임시역본으로 발행되었고, 1900년에는 신약전서 전체의 번역이 완료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아펜젤러가 번역을 한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후서>입니다. 1900년 5월 5일 성서공회 주일, 아펜젤러는 정동교회에서 완성된 신약전서를 손에 들고 감격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비록 그가 한국어 성서번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헌신으로 인해 한국어 성서번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존스 선교사가 쓴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주기 추도사의 일부입니다. “그는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살았으며 매순간 그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눈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앞장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진리와 충성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펜젤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무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무덤이 되었으며, 그는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과 동료 선교사들의 마음에 묻혔습니다. 올해는 그의 순직 12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3



거듭남의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한복음 3장 16절

어느 날 저녁에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니고데모였다.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다. 유명한 인사들은 체면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원해도 군중 가운데 나타나기를 꺼렸다. 즉 니고데모 같은 상류층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남의 시선을 피하여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다.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말했다. “선생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힘주어 말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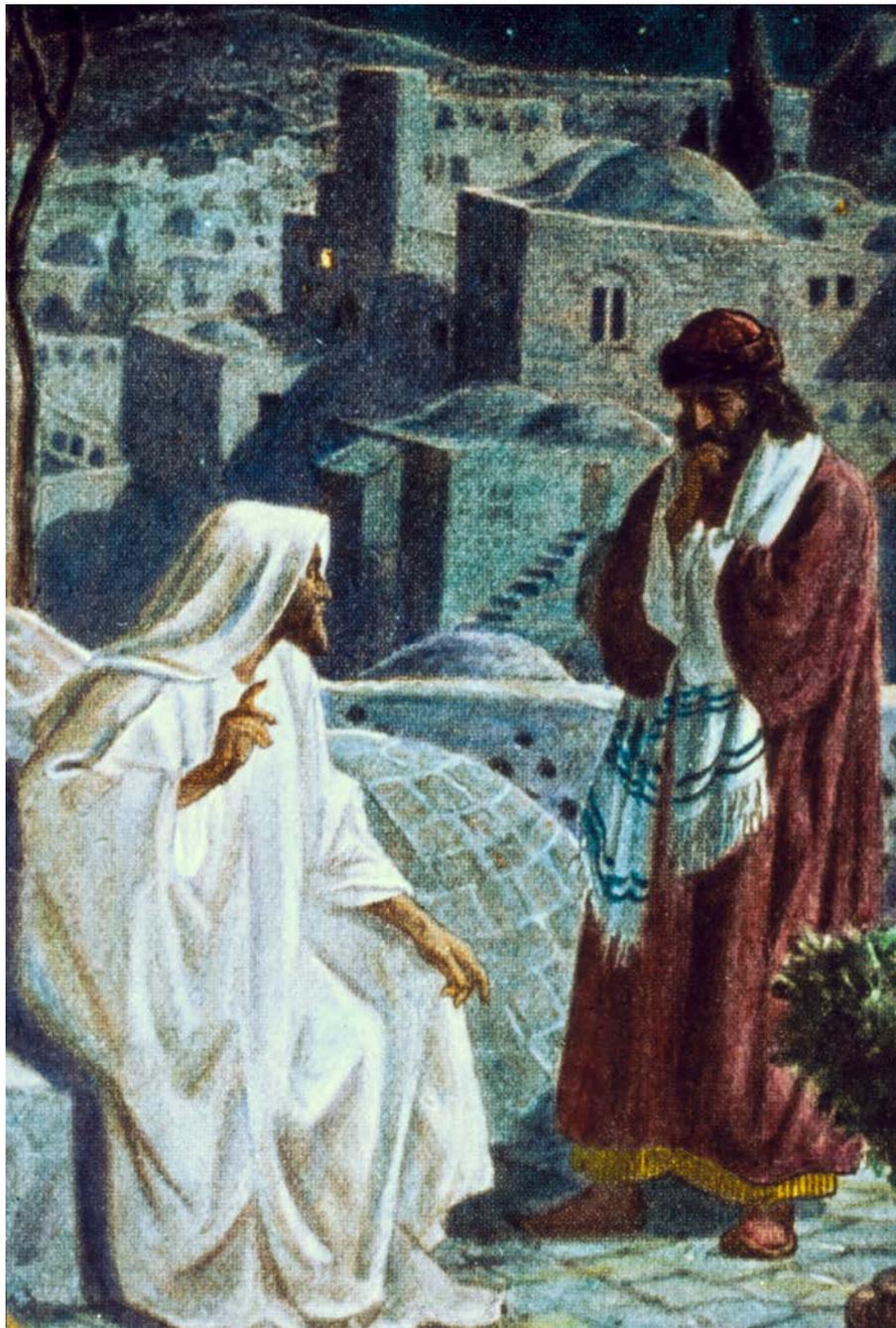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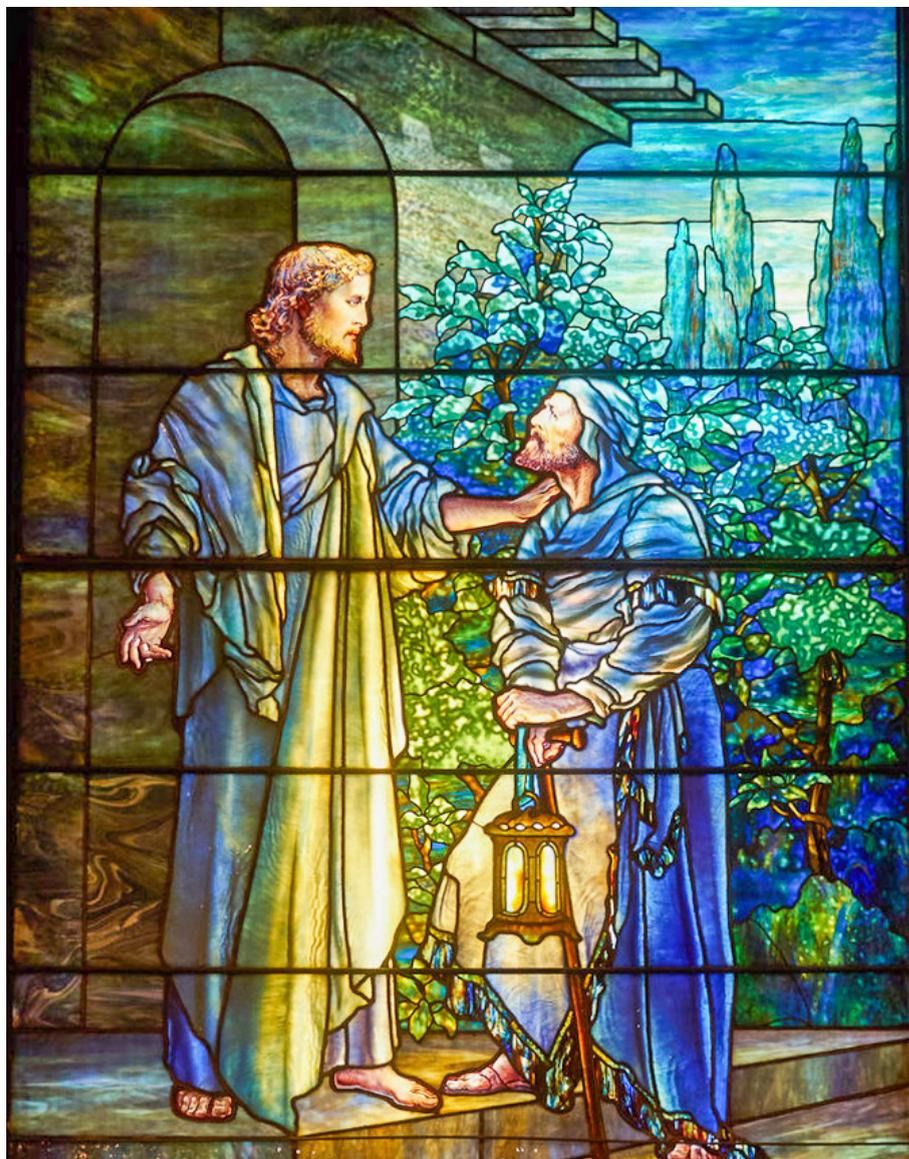
그러자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예수의 말에 니고데모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 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



▲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



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니고데모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이 되었다. 그가 평생 연구하고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니고데모가 추구하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가 추구하던 그 진리 자체였다.

✈ 광림뉴스레터

◀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니고데모_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다. 그는 산헤드린의 최고 위원이었지만, 예수를 변호하는 데 노력하였다.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